

관보고시 인쇄중단...성난민심 달래기 역부족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6.02 22:07

2일 저녁 7시 넘겨 정부 관보고시 인쇄 중단...폭우속 시민들 다시 촛불집회·행진 벌여

[사진3]

[대체] "될때까지 모이자, 미친 정부 몰아내자"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2일 서울 시청광장에는 3천여 시민들이 운집해 촛불집회를 열고 광화문행진을 벌이는 등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저녁 7시를 넘겨 빗발이 굵어진 가운데 시민들은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채 촛불을 다시 켜다. 집회 시작 즉시 사회자가 정부의 관보고시 연기 결정 소식을 듣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될때까지 모이자'는 구호를 외치는 등 밝은 표정으로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다시 현장에 나와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이후 투쟁을 위해 몸을 아끼자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시청광장 시민들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를 함께 부르며 "고시무효, 협상철회, 될때까지 함께해요"를 외치며 저녁 8시30분경 집회를 정리하고 다시 행진에 나섰다. 경찰은 세종로네거리 방면에 3중으로 차벽을 쌓고 경찰병력을 배치했다.

시민들은 시청광장에서 을지로, 종로를 거쳐 광화문으로 진출했고 차벽에 막히자 다시 행진머리를 틀어 시청, 남대문을 거쳐 세종로네거리 이순신 동상 앞까지 진출하고 9시40분경 행진을 마무리했다. 한편, 부산에서도 폭우속 촛불집회를 열고 행진을 벌였다. (▲ 맨위 부산집회 사진 참조)

[사진1]

[사진2]

[사진4]

한편, 민주노총은 관보고시가 일단 유보됨에 따라 예정된 운송저지 투쟁 등을 연기하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저녁 7시를 넘겨 관보고시 유예 방침이 확정되자 즉시 긴급논평을 발표해 "2일 오전까지만 해도 행안부는 관보게시 일정에 변동이 없음을 시사하던중 한나라당과 정부의 접촉 이후 관보게시가 연기됐다"며 "이러한 과정을 두고 이미 여론은 6월 4일 재보궐선거를 고려한 수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둘 생각이 없으며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고 "행정절차의 의미에 따라 정상적인 관보게시가 연기된 이상 정부가 서둘러 실직적인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위한 결단을 내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보에 장관고시 내용을 인쇄하다가 한나라당 요청으로 제본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고시를 완전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선 것이 아닌 '어물쩍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고시철회를 선언하지 않고 관보고시를 위한 인쇄 제본 자체를 일시 중단하고 공식게시가 유보됐지만 이같은 어지중간한 상태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관보게재 유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나라당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